

# 여수 낭도,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됐다

지역관광개발·인구감소 해결  
공용 화석·둘레길 자원 갖춰  
주민 생태관광해설 활동 활발  
올해 11월께 최종 결과 발표

여수 낭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화정면 낭도 여산마을이 ‘제5회 유엔관광청(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대한민국 대표 후보 마을로 선정됐다.

유엔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농업, 임업, 축산업, 어

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자 1만5000명 미만의 마을로, 문화·자연 자원의 우수성, 경제·사회적 지속 가능성, 민관 협력(거버넌스) 등을 종합 평가해 모범이 되는 마을을 선정한다. 유엔관광청은 올해 11월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낭도는 200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용 발자국 화석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해안가에는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주상절리대, 신선대 등 기암괴석이 남아 있어 섬 전체가 하나의 지질공원으로 호평받고 있다.

특히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낭도 둘레길은 전국 산악회에서 손꼽는 트래킹 명소로 꼽히고 있다. 지역 예술가들이 마을 담장을 작품으로 꾸민 ‘깁번미술길’을 비롯해 ‘낭도 야영장’, ‘백년도가 젓새막걸리’ 등 탐방객에게 다

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에 낭도 주민들은 생태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며 관광산업 전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설사 활동 등으로 지속적인 마을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문체부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비비각시탈 놀이 재연’ 등 마을 전통 보존에도 힘쓰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낭도가 유엔관광청에서 지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되면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세계적인 명소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낭도는 지난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에 선정돼 생태관광자



여수시 낭도 여산마을이 제5회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됐다. 낭도 둘레길. 여수시 제공

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2022년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2024년 해수부 ‘4월의 어촌여행지’에 잇따라 선정됐으며, 최근에는 영화 ‘길

여수=이경기 기자

##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2년 최대 480만원

여수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지급 기간 연장으로 수혜자는 2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시민외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영어·중국어 등 400명

여수시가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시민외국어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3월10일부터 11월22일까지 진행되며 영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4개 외국어에 대해 기초·초급·중급·생활회화 등 20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과정별 교재비는 학습자가 부담한다.

각 모집 인원은 영어 165명, 중국어 115명, 일본어 80명, 스페인어 40명 등 400명이다.

여수시OK통합예약 누리집(ok.yeosu.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평생교육과(061-659-472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농촌체험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시작... 379명에 일자리 제공

6월26일까지 101개 사업에 투입

여수시가 선발한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379명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6월 26일까지 정보화,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지역특성화, 관광자원 활용, 마을가꾸기 등 101개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 시간은 65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25시간,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정보화 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이다.

시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근로 능력 향상으로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근로 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을 공공일자리 대상으로 우선 선발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여수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발견기 울음소리, 음식물쓰레기 훼손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길고양이의 번식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은 문자 전송(061-659-2472)으로 이뤄지며, 올해 중성화 목표 개

체수는 960여마리다.

시는 신청 장소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 협약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마친 후 원래 위치로 방사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인도적인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여수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여수시, 행안부 ‘섬 복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과제 선정

전남 지자체 중 유일  
목욕·의료 서비스 등

여수시는 올해 공공서비스디자인 전문가 지원 협업과제인 ‘섬에 복지를 잇다, 효(孝) 나들이 행복한 동행’에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국

민참여혁신사업이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제출한 60여개의 과제수행 계획서를 심사위원별 서면·합동 심사를 거쳐 단기실행과제 10개, 정책개발과제 18개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섬 복지사업인 ‘지속 가능한 섬 지역 어르신 웰니스(목욕·의료·식사·카페) 체험’을 제시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향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국민 정책디자인단을 꾸려 지역 병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자, 후원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이 더해져 복지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수요자인 섬 거주 어르신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디자인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